

생태계 살려낸 엔비디아 실적, 이번엔 희생 아닌 주도



Market 황산해 _ sh.hwang@ls-sec.co.kr
RA 성현영 _ hyseong@ls-sec.co.kr

장중 관심은 반도체보단 에너지

- 미 증시는 DOW -0.21%, S&P500 -0.02%, NASDAQ -0.08%로 약보합 마감. 7월 PCE 지표가 물가에 대한 우려 지우지 못한 가운데 금리 압박 지속. 성장주가 상대적 부진했던 환경으로 장마감 후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발표 앞둔 관망세
- 산업재(+1.1%), 유틸리티(+0.5%)의 아웃퍼폼이 특징적. HotChips 2026 등 주요 AI 이벤트에서 반도체 성능과 병목보다 에너지의 솔루션에 집중된 행보. 반도체 업종의 방향성 테스트 구간 지속되는 가운데 시장의 관심과 병목 발생 지점의 이동이 GE 버노바(+2.8%), 이튼(+2.5%) 등이 위치한 영역으로 옮겨가는 모습

엔비디아 실적발표 이후, 넓어진 수혜 영역과 이번엔 같이 환호하는 엔비디아

- 엔비디아 실적이 컨센서스를 4~6%가량 상회. 애프터마켓에서 엔비디아(+4.5%)를 비롯해 네오클라우드, 반도체, 전력, 공조, 광자 등 AI 생태계 전반 긍정적 주가 반응. SK 하이닉스도 +4%대 상승. 엔비디아는 실적발표 직전 10거래일 중 9일 하락 마감하며 경제심리 선반영. 더해 그간 엔비디아 생태계만 좋았던 주가 반응에서 금번 실적은 엔비디아도 함께 상승하는 모습
- CFO가 FY28년 매출 성장률이 70%YoY 달할 수 있다고 발언한 점이 여전한 AI 투자사이클의 수요와 관련된 중간재 기업들의 이익 가시성 확보되는 측면. CEO가 공급 능력에 따른 성장 제약이 100%가 아닌 70% 성장 기준을 만든 것이라 발언한 점도 긍정적. 다만 어닝콜에서 메모리 병목과 비용 압박은 언급. FY28년 GPM이 72~73%대로 컨센(74%)대비 부진한 이유로 언급

여전히 끈적한 7월 PCE, 해석은 잭슨홀에서

- 7월 PCE 물가는 헤드라인 3.7% YoY, 근원 3.3%YoY 상승하며 컨센(3.6%, 3.3%)을 소폭 상회하거나 부합. 시장의 평가는 중립적이나 공급발 물가의 끈적함(Stickiness)가 남아있다는 반응. 28일 예정된 케빈 워시 의장의 잭슨홀 기조연설로 시선 이동.
- 잭슨홀 미팅의 경우. 최근 경제계 및 시장에서 연준의 과도한 소통 부재가 미국의 통화정책적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지적한 만큼 연준의 방향성과 TF에 대한 힌트 나올 가능성 존재. 재량 통화정책과 간소화된 소통방식을 선호했던 그리스핀 전 의장도 잭슨홀에서 만큼은 소통을 이어감

티커	종목명	수익률 (1D,%)	내용
NVDA	엔비디아	-1.6%	장 마감 후 실적발표. 시간 외 주가 +4%대 상승 중. CFO가 공급 제약 요인을 감안하고도 FY28 연간 매출 성장률을 컨센서스 대폭 상회하는 70%로 제시하며 시간외 주가 강세
CRWD	클라우드스트라이크	+2.1%	장 마감 후 실적발표. 시간 외 주가 +10%대 상승 중. 호실적 및 연간 매출 가이드선 상향 조정에 주가 급등. ARR(연간반복매출) +25% YoY 성장. 엔트로픽의 미토스 모델 공개 이후 AI 사이버 보안 수요가 급증하며 사상 최대 분기 실적 달성
CRM	세일즈포스	-0.03%	장 마감 후 실적발표. 시간 외 주가 +13%대 상승 중. 호실적 및 연간 매출 가이드선 상향 조정에 주가 급등. 엔트로픽 지분평가이익 \$2.6B 반영하며 순이익 +87%YoY, 현재 잔여수행의무(CRPO) 컨센서스 상회. AI 에이전트 툴 '에이전트포스'의 연간 매출 기여도 전망을 \$1.5B(+240%YoY)로 상향 조정. 엔트로픽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클라우드 내 자사 제품 통합을 발표. AI가 기존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를 잠식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시간외 주가 강세
INTU	인튜이트	-3.2%	전일 장 마감 후 실적발표. 호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, 연간 매출 성장률 가이드선을 작년 14% 대비 둔화된 9~10%로 제시하며 주가 하락. 정규장에서 S/W섹터 전반에 하방 압력
META	메타	+1.1%	인스타그램·페이스북의 청소년 중독성 설계 및 아동 데이터 수집 혐의 소송과 관련해, 미국 29개 주 검찰총장단과 최대 \$16.68B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도달. 일일 이용 시간 상한(2시간), 심야 접속 제한, 뷰티 필터·좋아요 수 노출 제한 등 5년간 강력한 안전장치를 도입하기로 합의.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되며 주가는 안도감에 소폭 강세
ANF	에버크롬비 & 핏치	+35.7%	회계연도 2분기 실적과 이익 전망치가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한 가운데, 연간 가이드선 대폭 상향 조정하며 주가 강세